

Question 3 (continued)

- (a) ㉠(line 6)과 ㉡(line 53)에서 웃음의 의미는 서로 어떻게릅니까? 2
이 글에 나오는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세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mile referred to in ㉠ (line 6) and the smile referred to in ㉡ (line 53)?

㉠의 웃음은 자신의 슬픔을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의 웃음이고 ㉡의 웃음은
안도의 말을 비웃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의
웃음이다. (말도 안된다는 웃음)

- (b) 세 인물(사내, 나, 안)의 성격과 태도가 ㉠(lines 1-2), ㉡(lines 7-8)를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3

How are the three characters' (사내, 나, 안) personalities and attitudes reflected in lines 1-2 and lines 7-8 in this short story?

사내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
고 남에게서 위로 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존재이고 나와 안은 처음부터 흔쾌히
같이 있어주길 생각하지 않으므로 보아
이기적이고 개인 주의가 강하다.
인간사이의 정이 없고 메마르다.

Question 3 continues on page 11

Question 3 (continued)

(c) “멋있게 한 번 써 봅시다.” (Line 3)

3

“넥타이를 하나 골라 가져.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Line 18)

위의 두 대사에 나타나고 있는 사내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세요.

‘Spend this money nicely.’ (Line 3)

‘Choose one of the ties. My wife is buying for you.’ (Line 18)

Analyse the man’s mental state from the two statements above.

사내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절망에 빠져있다.
 특히 아내의 시신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 돈으로
 넥타이를 사고 아내가 사주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달라고 있다.

(d) ①(line 15), ②(line 22), ③(line 35)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작품 ‘서울, 1964년 겨울’의 주제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세요.

5

How do the sentences ① (line 15), ② (line 22) and ③ (line 35) relate to the theme of the short story *Seoul, Winter in 1964*?

이 작품은 근대화, 산업화된 도시에서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데도 갈데가 없다는 것은 사람사이의
 연대감 상실과 만남의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것은 이
 작품의 주제인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연대감 상실을 구체적 예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또 돈을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는 물질만능주의의 문제점을 ^{의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Question 3 (continued)

- (e) 이 작품은 1960년대 우리나라 도시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습니까? 이 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세요.

7

How does the short story explore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city life of individuals in the 1960s? In your answer, refer to the extract and the short story as a whole.

1960년대 급격히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 ~~사이~~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산업화 위주의 ~~급진적~~ 삭막한 사회가 되었다.
 다만 저산면 그나마 이라는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사람~~ ~~사이~~ 사람 사이의 연대감을
 상실한다. 이 글에서 사내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남에게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만
 나와 안은 자신들과 생각이 없는 남의일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또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은 채 이야기를 전개해 변화된
 사회의 익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대화내용은 하나가같이 무의미한데
 이것은 ~~연대감~~ 연대감 상실과 만남 자체의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적인 배경도 좁고 혼잡한 거리,
 화재가 난 곳 등 근대사회의 익명성과
 삭막함을 보여준다. 불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그저 같이 앉아
 화재난 곳을 하나의 재미있는 볼거리로 인식하고
 구경한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강하게 드러난다.

End of Question 3